

도조달청 협약 2개월 만에 지역 스카우터 지정

전북자치도 추천과 조달청 심사 거쳐 전북IP·전북창조센터 공식 선정

전국 최초 '지자체 추천-조달청 지정' 모델 통해 혁신조달 전문성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천한 지역 혁신기업 지원기관들이 조달청의 '지역 스카우터'로 최종 지정되면서, 도내 스타트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전문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달청 혁신제품 발굴기관인 '지역 스카우터'로 최종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스카우터'는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현장에서 발굴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추천하는 제도로,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전북자치도

와 조달청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체결한 혁신조달 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성과로 추진됐다.

특히 도가 지역 내 전문성과 현장 역량을 갖춘 기관을 추천하고, 조달청이 전문성과 실행력을 종합 심사해 최종 승인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신뢰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민간 투자사(VC·AC) 중심으로 운영되던 스카우터 영역에서, 이번에는 전북자치도가 추천한 공공 혁신기관이 공식 지정되면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혁신제품 발굴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심사 과정에서 일부 공공성·혁신성 평가 항목 면제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실적 부족 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도내 스타트업과 창업·벤처기업들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청과 병원 등 공공 인프라를 개방해 도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을 실제 현장에서 시험·검증하는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업들은 공공기관 실증을 통해 확보한 성능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스카우터 추천과 조달청 혁신제

품 지정까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의 공공실증 지원사업과 지역 스카우터 제도가 연결되면서, 스타트업들이 초기 실증부터 공공 판로 확보와 매출 창출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성장 하이패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스카우터 기관과 협력해 도내 유망기업과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하고, 실증·시범구매·공공조달 연계를 통한 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3월 조달청과의 약속이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며, "이번 지정은 계기로 유망 스타트업들이 초기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딛고 전국구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확실한 성공 통로를 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1만호 기자

전북도,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도민 대상 방문 면접조사... 흡연·음주·만성질환 등 17개 영역 대상

결과 연말 공개... 시·군 보건사업·건강증진 정책 기초자료 활용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달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 행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정책 수립과 건강격차 해소에 활용하기 위해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약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원이 표본기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대1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다.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조사항목은 △흡연·음주·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의약품 △노쇠 등 총 17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도는 조사를 통해 지역별 건강 수준과 생활습관,

질환 특성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건강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결과는 올해 12월에 공개될 예정이며, 시군 보건사업 계획 수립과 지역 보건 의료계획 수립, 건강증진사업 평가 등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역간 건강 격차와 취약 분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도민 체감형 건강정책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도는 최근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지표에서 현재흡연을 16.4%, 월간음주를 52.2%, 스트레스 인지를 21.7% 등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건강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별 건강 수준 변화와 정책 효과를 더욱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1만호 기자

도, 대규모 건설현장·다중이용시설 집중안전점검 나서

감나무골 재개발 현장·덕진수영장 찾아... 현장 점검·철저한 안전관리 중요성 강조

화재·추락·감전·익수사고 예방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사고 예방 만전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건설현장과 덕진수영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규모 건설현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재난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도는 14일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건설현장과 덕진수영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대형 공사현장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주시 관계 공무원, 산업안전·건축·전기·소방 분야 민간 전문가, 시설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먼저 점검이 이뤄진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 공동주택 28개동 1,914세대가 조성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이다. 현재

공정률 약 82% 수준으로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 설치 상태와 화재위험 작업 안전관리 실태, 작업자 보호장비 착용 여부, 자재 적치 상태와 통행로 확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고층 공동주택 공사현장 특성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와 소방·파난설비 구축 현황, 근로자 안전교육 운영 실태 등도 함께 확인했다.

노홍석 권한대행은 "공정 후반부는 내부 마감공사와 경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준공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마지막 공정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덕진수영장에서는 건축·전기·소방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전기·기계설비 운영 상태, 비상구 및 파난동선 확보 여부, 미끄럼·낙상·익수사고 예방대책 등을 중점 점검했다.

덕진수영장은 최근 3년간 이용객이 108만 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다중이용 체육시설로, 이날 점검에서는 누전·감전 예방대책과 응급구조장비 비치 상태,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 운영 실태 등도 함께 확인했다.

노홍석 권한대행은 "재난예방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점검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라며 "수영장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이용자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자율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생활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전북자치도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스마트도시·투자유치 전략 아카데미 개최

새만금청, 경기대 특임교수 초청·제2회 신산업전략 아카데미 성료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도시의 미래와 투자유치 필요성 및 전략'을 주제로 올해 두 번째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5월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련 기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경기대학교 이한규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으로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도시의 필요성과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다뤘으며, 이한규 교수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만금의 발전 방향을 깊이 있게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서는 미래 첨단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이 도시 생존의 필수 조건임을 설명하



며, 새만금 내 스마트도시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에너지지립형 그리고 이를 자율주행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도시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부지를 매입해 시설을 구축하는 '그린필드형 투자유치'를 강조하며, 광합한 미개발부지를 보유한 새만금은 세분화된 산업군과 기업의 입지 선택 기준을 분석한 인센티브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처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1만호 기자

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전북자치도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도는 14일 도청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공직자 인식을 높이

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 사례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전문강사인 유정은 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성희롱 판단 기준과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

/1만호 기자

상속 한정승인공고

망 최경희(1970. 1. 10.생 2026. 2. 15. 사망)의 사망으로 상속인 최승호는 2026년 5월 12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6.누단 3349 상속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 ▶피상속인: 망 최경희(1970. 1. 10.생 2026. 2. 15. 사망) 최후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가마서로 48(삼천동 1가)
- ▶공고안 최승호
- ▶상속 한정승인 수리일: 2026년 5월 12일
- ▶공고기간: 2026년 5월 18일 ~ 2026년 7월 17일
- ▶주소 (청구인) 최승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가마서로 48(삼천동 1가) 연락처 010-9473-3559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